

전북도, 친환경실천문화 확산기로

환경녹지분야 주요업무계획 악취·유해환경의 중점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확충 등 추진

전북도는 올해 악취·유해환경의 중점관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확충으로 친환경실천문화를 확산기로 했다.

17일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가치있는 생태, 산림자원이 더욱 내실있게 조성되는 '2017년도 환경녹지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악취·유해환경의 중점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확충으로 소각량 및 재활용량 증대, 매립량 감축을 통한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강화로 친환경실천문화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악취를 지난해 대비 20% 개선을 목표로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 등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왕궁의 악취관리를 위해 축사개입과 월1회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최

소화하고 2020년까지 현재 56.3%인 재활용율을 72%까지 높일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대화, 소각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주민 수요에 맞춘 컨설팅 실시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2개소 인증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소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생태관광 추진을 위해 시군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진안, 무주,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고군산 군도 일원 지질자원 발굴과 가치 조사를 통한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미세

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 등 '2016년 대책(8개사업, 22억)을 개선·보완해 5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유지를 위해 불법행위 계도, 쓰레기 수거 등 상류 오염원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용담댐 수질개선유지 자율관리 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 시스템 운영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로 상수도

보급률을 87%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3개 시·군(무주, 장수, 부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해 유수율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 대표적인 과실수 식재 등을 통한 풍이 되는 산림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시키기로 했다.

또한 도심속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 조성과 산림휴양·문화시설 확충으로 도민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환경, 자연생태, 물, 산림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상상·발전은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1차 접수 23일~2월 17일... 2차 접수 3월 6일~24일

전북도가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greenhome.kemco.or.kr>)에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기간은 23일~2월 17일, 2차 접수기간은 3월 6일~24일이다.

한편, 1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 신청은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그동안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450kWh 미만인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73~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가금류 소비 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및 관련업계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 700여명이 참석해 도청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실시했다.

전북 뿌리산업연 정기총회 개최

전북도는 17일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도내 유관기관, 100여개 뿌리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뿌리산업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주최한 2017년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가 참석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내 뿌리기업의 스마트공장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ICT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뿌리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되고, 첨단뿌리기술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뿌리산업의 발전과 뿌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점검을 토대로 제2차 전북뿌리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도내 뿌리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국가 이슈 해결로 전북 농식품산업 고도화'

전북생진원 운영계획... 곤충산업·발효산업·연구소기업 활성화 등 추진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전북 삼라농정 구현은 농식품 연구사업에 있다"며 "2017년 농식품 R&D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생진원은 올해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면서 도내 농산물 활용 및 신규작목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곤충산업기반 조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비식용분야 기술,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전략상품 및 수출장어 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 등 신규 연구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미생물 유래 유용물질의 산업적 생산기반을 구축해 전북 발효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년간 농식품 R&D지원센터를 통해 구축해온 공공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구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농식품분야 연구소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북도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지난 2015년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이들 지역과 함께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연구성과 사업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 원장은 "지난해에도 국내 농

산물을 활용한 HMR 제품개발 및 중국 영유아를 위한 신바이오틱 식품의 개발 등 국내산 농산물 원료 가공기술 연구, 쌀가루 품질지표 개발 등 쌀 소비촉진 연구가 산라농정 실현을 위한 과제로 도출돼 국비 177억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면서 2017년 운영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이어 "연구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면서 도내 농식품기업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 R&D지원센터' 사업은 전북의 풍부한 농식품 연구 인프라와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13년에 처음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개 지자체연구소 등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농식품분야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국비사업 유치로 통해 도내 영세한 식품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기술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소재연구팀(063-210-6533)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전북도가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가금류 소비 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및 관련업계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실시했다.

이번 시식회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전 직원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청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닭·오리고기 소비를 늘려야 하고자 마련했다.

AI 발생지역 가금류는 이동통제·방역관리를 거쳐 철저히 관리되고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으며 75°C에서 5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없다.

아울러 정읍시의 경우 시장 및 청원 350명이 구내식당에서 삼계탕 시식회를 가졌고 익산시 및 완주군은 주 2회 닭고기가 포함된 식단을 구성하는 등 AI가 안정될 때까지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부정한 성과상여금 받아도 징계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성실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된 것.

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의 경우도 징계 사유로 신설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

사람을 찾습니다

▲박진현(550430-1*****) - 남
▲박종천(640102-1*****) - 남
▲박형진(671025-1*****) - 남

송정규(300310-2*****)씨가 그의 세 아들인 박진현, 박종천, 박형진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주소: 전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2번지
**연락처: 010-3903-8619(송정규)